

## 전도서에서 전통 지혜에 대한 비판과 옹호: 두 개의 열쇠어와 전도서 9장 7-10절을 중심으로\*

김흥현(송실대)

### 1. 서론

20세기 초반 한스 C. 액커만(Hans C. Ackerman)<sup>1</sup>이 전도서에서 반복 사용된 ‘헤벨’의 의미를 사전적 범주에서 분석한 이래로 이후 전도서 연구는 대체로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헤벨의 비판적 의미에 집중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헤벨 연구는 이 용어에 담긴 사전 의미보

\* 본 논문은 2023년 4월, 122차 춘계 한국 구약학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논문에 대해 세밀하게 논찬해 주신 하경택 박사(장신대)와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본 논문의 기초는 필자가 2022년도에 송실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한 학위논문 “전도서에 나오는 헤벨 담론의 중의적(重義的) 수사에 대한 주석적 연구”(미간행박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대학원, 2022)에 근거한다.

1 Hans C. Ackerman, “The Problem of Ecclesiastes”, *The Biblical World* 48-2 (1916), 82-88. 그의 견해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도서를 실천적 지혜 철학(the practical philosophy of Wisdom)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참조, 83). 다른 하나는 **הֵבֶל** 아말/수고 하다는 경제활동이 아닌 윤리 도덕적 삶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참조, 84, 86).

다 문맥에 담긴 사상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주된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헤벨 개념을 감정과 사상으로 확장한 연구다.<sup>2</sup> 리처드 A. 퍼(Richard A. Fuhr)와 아더 키퍼(Arthur Keefer), 춘-L. 시아우(Choon-L. Seow) 등이다. 이들은 헤벨을 좌절감(리처드 퍼),<sup>3</sup> 심리적 고통(아더 키퍼),<sup>4</sup> 이해 불가능한 사회현상(C. L. 시아우)<sup>5</sup>과 같이 인간의 감정과 사상으로 파악한다.

둘째, 헤벨의 수사적, 신학적 기능에 주목하는 경우다.<sup>6</sup> 더글라스 B. 밀러(Douglas B. Miller), 이은희(Eunny P. Lee), 김희권 등이다. 밀러는 헤벨의 수사적, 상징적 기능에 천착한다.<sup>7</sup> 즉 문맥 안에서 전체를 아우르

2 철학과 관련한 연구는 Thomas Bolin, "Rivalry and Resignation: Girard and Qoheleth on the Divine-Human Relationship", *Biblica* 86-2 (2005), 245-259; Samuel. T. S. Goh, "The Hebel World, Its Ambiguities and Contradiction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5-2 (2020), 198-216. 죽음 주제를 주제로 한 연구는 Shannon Burkes, *Death in Qoheleth and Egyptian Biographies of the Late Period* (SBLDS 170: Atlanta: Scholars Press, 1999)와 Sun Chloe, "Ecclesiastes among the Megilloth: Death as the Interthematic Link",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7(2) (2017), 185-206쪽 등을 참고하라.

3 Richard Alan Fuhr Jr. *An Analysis of the Inter-Dependency of the Prominent Motifs within the Book of Qoheleth* (SBLDS 151: Boston: International Academic Publishers, 2012), 37-81. 특히 57-58쪽과 75쪽을 참고하라. 키 시볼드(Kiel K. Seybold)도 헤벨의 감정 측면을 고려한다. Kiel, K. Seybold, "הֶבֶל hehbel; häbhal", G. J. Botterweck/H. Ringgren (eds.), J. T. Wallis/G. W. Bromiley/D. E. Greene(trans.), *TDOT* vol. III (Grand Rapids: Eerdmans, 1978), 313-320, 특히 315쪽.

4 Arthur Keefer, *Ecclesiastes and the Meaning of Life in the Ancient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키퍼도 인간의 감정과 심리에 근거하여 헤벨을 토대로 한 전도서 이해를 시도한다. 특히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등의 지중해 지역에서 보편적인 주제인 고통의 문제에 집중한다.

5 Choon-L. Seow, *Ecclesiast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97), 59-60. 시아우는 헤벨을 '이해할 수 없다.', '항구성이 없다.' 등으로 정의했다.

6 특히, 최근 수사적 기능에 대해서는 김진규, "구약 수사비평의 새로운 연구 방향 모색", 「구약논단」 21권 4호 (2015년), 167-208쪽을 참고하라.

7 Douglas B. Miller, *Symbol and Rhetoric in Ecclesiastes: The Place of Hebel in Qoheleth's Work* (Atlanta: SBL, 2002). 그는 자신의 제안에 앞서 헤벨의 이전 연구 경향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한다. (1) 하나의, 추상적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 (2) 다의적인 의미에 주목하는 경향, (3) 하나의, 비유로 이해하려는 경향 등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그의 글, "Qoheleth's Symbolic Use of הֶבֶל",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7(3) (1998), 437-454.

고(omnivalency)', '다의적 가치(multi-valencies)<sup>8</sup>를 유지하는 헤벨의 의미와 기능을 고찰한 것이다.<sup>9</sup> 이은희(Eunny P. Lee)도 헤벨을 수사적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헤벨보다 인생 향유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sup>10</sup> 헤벨을 인생 향유에 대한 수사적 서술 장치로 이해하면서 하나님 경외신학까지 아우른다. 한편, 김회권은 헤벨을 창조신학적 관점으로 이해한다. 그는 헤벨을 '허무주의가 아니라 불확실한 것,' '정해진 인과법칙보다 이해 불가의 원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정의한다.<sup>11</sup> 즉 헤벨은 이해 불가능한 현실을 창조신학 관점에서 조망하는 코헬렛의 전문 용어라는 것이다.

셋째, 잠언과 전도서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다. 로널드 머피(R. Murphy), 김지명, 오민수, 배정훈의 연구가 있다. 머피는 헤벨을 잠언의 맥락을 따르는 핵심주제어로 분석한다. 그는 헤벨을 '불멸성에 대한 믿음'으로 이해한다.<sup>12</sup> 또한 이 헤벨이 '하나님 경외'와 연동되어 잠언, 신명기 등 전통 지혜의 보수적 견해와 짝을 이룬다고 분석한다(참조. 전 12:9-14). 김지명은 전도서 안에서 사상적 다성성(多聲性)을 심층 탐구

특히 438-444쪽을 참조하라.

- 8 밀러는 "헤벨을 코헬렛이 선택한 핵심 용어로서 다양한 불확실성을 은유로 표현하는 상징"이라고 말한다. Miller 윗글, 452. 한편 김창대는 헤벨의 상징적인 기능은 아이러니를 의도한다는 지배적인 견해를 소개한다. 이 아이러니는 부정적 헤벨을 긍정의미로 전환하는 데 기여한다. 김창대, "전도서에서 헤벨과 신중한 삶", 「장신논단」 50권 5호 (2018년), 42-43.
- 9 이점은 최창모도 동일하게 주장한다. 최창모, "전도서의 수사적 질문과 '헤벨'의 상징적 기능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 104집 (1999년), 112-145.
- 10 참조. E. P. Lee, *The Vitality of Enjoyment in Qohelet's Theological Rhetoric* (Ellingwood: Walter de Gruyter, 2007).
- 11 김회권, 「인문 고전으로서의 구약성서 읽기」 (서울: 박영사, 2021), 534.
- 12 Roland E. Murphy, "Qoheleth Interpreted: the Bearing of the Past On the Present", *Vetus Testamentum* 32 (1982), 331-337.

한다.<sup>13</sup> 이 다성성에 근거하여 전도서 안에 잠언의 특징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탐색한다. 그리하여 전도서 안에 전통 지혜 담론 혹은 행복 담론들이 유입되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도출한다. 오민수 역시 전도서가 잠언의 지혜 전통 프레임을 활용했다고 주장한다.<sup>14</sup> 배정훈은 전도서를 ‘잠정적 잠언’으로 이해한다. 전도서가 전통적 지혜의 남용을 비판하면서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새로운 지혜를 제시한다고 보았다.<sup>15</sup>

이런 선행 연구들은 헤벨이 전도서의 핵심 개념으로서 전통 지혜와 긴밀한 사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헤벨을 헤벨 담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전도서를 전통 지혜와 연관되어 살펴보려는 선행 연구들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이 연구들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계승한다. 첫째, 헤벨을 헤벨 담론으로 확장하여 이해한다. 둘째, 전도서는 허무나 인생향유라는 처세의 책이 아니라 당대 사회에서 전통 지혜를 비판하면서도 옹호함으로써 하나님 경외신학을 강화하려는 중의적 수사를 시도한 변증적 지혜서라는 것이다.

이런 바탕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도서의 헤벨 담론(hebel Discourse)<sup>16</sup>에서 코헬렛이 중의적 수사를 사용한다는 것을 분석하여 전

13 Jimyung Kim, *Reanimating Qohelet's Contradictory Voices: Studies of Open-Ended Discourse on Wisdom in Ecclesiastes* (Leiden and Boston: Brill, 2018), 69-164.

14 오민수, “잠언과 전도서의 지혜 프레임 스케치: 잠언 24:10-12과 전도서 4:7-9을 중심으로”, 『구약논집』 11집 (2016년), 120-143.

15 배정훈, “전도서에 나타난 잠정적인 지혜”, 『구약논단』 17권 4호 (2011년), 10-32. 특히 10-11쪽을 참고하라. 그는 이 새로운 지혜를 ‘잠정적 지혜’라고 부른다.

16 여기서 ‘전도서’는 한글 개역 개정을 따른 책명을 가리킨다. 반면에 본 글에서는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인 ‘קֹהֶלֶת’(코헬렛)을 주로 인명을 제시할 때 사용한다. 다만 문맥에 따라서는 인명과 책 이름이 혼용될 수도 있다. 한편 히브리 성경에서 קֹהֶלֶת(헤벨)은 모두 79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전도서에서 38회 나타난다. 특히 본 논문에서 말하는 헤벨 담론은 헤벨을 토대로 일정한 단락을 구성하는 본문을 의미한다. 전도서에서는 다

도서 지혜 신학의 서술 특징을 제안하려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중심 논지는 ‘전도서의 코헬렛은 헤벨 담론에서 두 개의 열쇠어를 활용해 중의적 수사(double entendre)를 변증법적으로 수행한다’라는 것이다. 한편으로 전통 지혜의 한계와 무효과성을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 전통 지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통 지혜를 옹호하며 계승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 지혜에 대한 비판과 옹호라는 헤벨 담론의 중의적 수사를 통해 코헬렛은 선과 악의 심판 날에 보상받을 삶을 기대하도록 추동하면서 현재 삶의 자리에서 전통적 지혜 추구 수고를 재강화하려는 의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심 논지를 설명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열쇠어 단락(key text)으로서 1장 12-18절과 12장 9-14절이다. 전도서 처음과 마지막에 자리한 이 단락들의 핵심 용어는 ‘그 지혜로(1:13, 한글 개역 개정 “지혜를 써서”)’와 ‘모든 은밀한 일’(12:14)이다. 둘째, 중의적 수사의 한 예로서 9장 7-10절이다. 이 단락은 전도서의 헤벨 담론 중 헤벨 명시 담론이다. 이 단락은 헤벨이라는 사회 상황 아래서 중의적 수사를 활용하여 하나님 경외를 강조한다. 그리하여 코헬렛은 전통 지혜가 무력해진 현실에서도 과도한 자기 욕구보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권면한다. 특히 이 단락은 헤벨 상황에서 전통 지혜에 대한 코헬렛의 비판과 옹호를 동시에 보여주는 한 예이다.

본 연구는 현재 본문의 정경 형태를 그대로 수용하여 해당 본문의 문학적 특징을 파악하는 자세히 읽기(close reading)를 적용한다. 본 연구

---

음과 같은 네 개 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헤벨 명시 담론(4:4-16; 6:1-12; 7:15-18; 8:14-17; 9:7-10), 헤벨 암시 담론(3:16-22; 5:1-7[히. 4:16-5:6]; 7:1-14, 19-29 등), 맥락에 따른 헤벨 담론(2:1-3:15), 신학 사상적 헤벨 담론(1:2-11; 11:1-12:8) 등이다.

의 의의는 전도서가 전통 지혜에 대한 비판적 지혜서이며 동시에 그것을 옹호하는 보수적 지혜서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데 있다.

본 논문은 들어가는 말에 이어 헤벨 담론의 선행 연구 요약, 헤벨 담론의 중의적 수사를 보여주는 열쇠어를 분석한다. 이어서 헤벨 명사 담론 중 한 예인 9장 7-10절을 주석한다. 이를 통해 전통 지혜 옹호와 비판이라는 중의적 수사를 서술한 뒤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 2. 헤벨 담론에서 전통 지혜 비판과 옹호의 열쇠어

전도서는 헤벨 담론이라는 문학적 단위를 활용해 중의적 수사<sup>17</sup>를 구사하여 전통 지혜에 대한 비판과 옹호를 동시에 보여준다. 다음 두 개의 열쇠어가 주된 기능을 한다. 하나는 **קִרְבָּן**(바호크마/그 지혜로)이며 (1:12-18), 다른 하나는 **כֹּל-נֶאֱמַר**(콜-네람/모든 은밀한 일)이다(12:9-14).<sup>18</sup>

17 중의성은 '두 개의 의미로 동시에 듣는다'를 의미할 수 있다. "Ambiguity" in M. H. Abrams, Geoffrey Harpham,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Boston: Wadsworth, 2009), 12. 한성일, "언어 전략으로서 중의성 연구", 「한국어 의미학」 27호 (2008년), 341-364. 중의성이 '반복' 기법과 관련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Wilfred G. E. Watson,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289 쪽을 참고하라: "중심 단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 시의 구조적인 패턴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참고 W. P. 브라운, 「전도서」(채은하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65-66. 중의성을 성경해석에 적용한 지미 로버츠(Jimmy J. M Roberts)는 이것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은 단어를 통해 독자에게 의심이나 질문, 또는 강한 자국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시도하는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J. J. Glück, "Paronomasia in biblical literature", *Semitics* 1 (1970), 53. 참조 Jimmy J. M. Roberts, "Double Entendre in First Isaiah",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4 (1992), 39. 한편 전도서 외의 경우는 강승일, "아가에 등장하는 중의적 표현들(double entendres)에 대한 연구", 「신학사상」 151호 (2010년), 11. 각주 3을 참고하라. 중의성과 변증법의 관계는 송화숙, "전도서에 나타난 변증법적 신정론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2015)를 참고하라.

18 브라운을 비롯한 여러 학자는 12장 9-14절을 코렐렛 자기 말이 아니라 후기 저자들의 경교로 이해했다. 브라운, 「전도서」, 189.

### 1) לְרִיבֵי הַחֵמָה (바호크마/그 지혜로, 1:13)

전도서 1장 13절에서 사용된 ‘바호크마’는 신명기와 잠언으로 대표되는 전통 지혜를 포괄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코헬렛 자신의 지혜를 반영한 용어로도 보인다. 특히 이 용어가 잠언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은 이 단어에 연결된 두 개의 부정사 연계형 לְרִיבֵי הַחֵמָה וְלִתְרוּם (리테로쉬 베라투르/연구하며 살피기 위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잠언 1장 1-6절에 따르면 이 두 개의 부정사는 지혜 교육의 목적을 반영한다. 머피는 이 구문이 잠언과 유사하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뒤따라가는 지혜자의 행동을 표현한다고 이해함으로써 전도서와 잠언의 관계를 긍정한다.<sup>19</sup> 나아가 그는 ‘그 지혜로’라는 방법이 잠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원리(Principle of Questioning)’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 원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에만 길들여진 조상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인습 비판적 지혜자(tough-mind thinker)’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인다. 따라서 이 주장은 전도서가 잠언을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비판하는 대조적 행동이 동시에 적용된 지혜서라는 논의를 지지한다.

반면에 바솔로뮤는 전도서가 잠언과 연동된다는 것에 다소 회의적이다. 그 역시 코헬렛이 자신을 1인칭으로 표현하면서 ‘지혜’를 토대로 직접 참(진리)을 찾으려고 시도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잠언은 ‘지혜로’라는 방법을 직접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헬렛의 경우처럼 삶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개인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았다.<sup>20</sup>

19 Ronald E. Murphy, *Ecclesiastes* (Word Biblical Commentary, 23A; Waco Texas: Word Books, 1992), 11, 13; 참조. 오민수, “지혜 전통의 계승과 혁신: 전도서에 사용된 이른바 ‘서술형 사고패턴’의 유래에 대한 소고”, 『구약논단』 20권 4호 (2018년), 281-304.

20 C. 바솔로뮤, 「전도서 주석」 (김정훈 옮김), (베이커 지혜 문헌, 시편 주석 시리즈 6: 서울: CLC, 2020), 206-207쪽을 참고하라.

한편 폭스는 바솔로뮤를 비판하면서 머피의 주장대로 잠언과 전도서의 상관관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이 ‘바호크마(그 지혜로)’라는 말에 다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상술했다. 즉 창발성(ingenuity), 상식(Good sense), 이성적인 지성(Rational Intellect) 등이다.<sup>21</sup> 이 세 의미가 전통지혜와 전도서 안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본 것이다. 시아우도 잠언과 전도서의 연관성에 동의한다. 그런데 그는 ‘그 지혜로’가 적용되는 상황에 좀 더 주목한다(13절). 그 상황은 ‘하늘 아래서 행해진 모든 것’(עַל כָּל-אֲשֶׁר נַעֲשָׂה תַּחַת הַשָּׁמַיִם)이다.<sup>22</sup> 시아우에 의하면 코헬렛은 ‘지혜’ 자체를 탐구 대상으로 하기도 ‘그 지혜’를 도구로 ‘해 아래서’ 실제 일어난 일들을 실용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최근 다른 학자들에게서도 이어진다. 차준희 역시 자신의 전도서 1장 연구에서 ‘그 지혜로’를 13절과 관련하여 주장한다. 즉 “전도자는 우선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연구한다.”고 파악한 것이다.<sup>23</sup> 이 설명은 코헬렛이 사용한 ‘그 지혜로’가 잠언 지혜뿐만 아니라 자신이 습득한 모든 지혜를 토대로 활용한 도구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모든 은밀한 일’을 탐구하려는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브라이언 피터슨(Brian N. Peterson)도 이 ‘그 지혜로’가 앞으로 전도서 3-12장에서 서술될 코헬렛의 사상들을 미리 내다보게 한다고 적절하게 파악했다.<sup>24</sup> ‘그 지혜로’는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21 Michael V. Fox,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Build up: A Reading of Ecclesiastes* (Grand Rapids: Eerdmans, 1999), 72-74.

22 Seow, *Ecclesiast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120.

23 차준희, “전도서 1장의 신학적 읽기”, 『성령과신학』 25호 (2009년), 22.

24 Brian N. Peterson, *Qobeleth's Hope: The Message of Ecclesiastes in a Broken World* (London: Lexington Books, 2020), 55.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핀다는 것이다.<sup>25</sup>

정리하면, 코헬렛이 활용한 ‘בְּחִכְמָהּ’ 그 지혜로’는 전통적인 잠언 지혜와 코헬렛 자신이 ‘해 아래서’ 겪은 현실 경험 지혜를 포괄한다. 코헬렛은 이를 중의적 수사의 개념으로 활용한 것이다.

## 2) כָּל-נֶעְלָם (콜-네람/모든 은밀한 일, 12:14)

כָּל-נֶעְלָם (콜-네람)은 문자적으로 ‘모든 은밀한 것/감춰진 것’(12:14)을 의미한다. 이 용어에 근거하면, 12장 9-14절은 12장 8절에 이어진다.<sup>26</sup> 게럴드 H. 윌슨(Gerald H. Wilson)은 12장 9-14절을 잠언 1장 1-8절과 직접 관련짓는다. 그리하여 코헬렛이 전통 지혜를 비판하고, 옹호하는 지혜자라는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파악한다.<sup>27</sup> 무엇보다 이 내용의 연속성은 다음 관련 본문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3장 10-15절이다. 이 단락은 עֲלָם이라는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한 עָלָם(올람/영원, 3:11)이 12장 9-14절의 נֶעְלָם(네람/감춰진 것, 12:13)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עֲלָם의 의미 범주에 따르면 ‘은밀한 일/감춰진 일’과 시간의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이라는 의미 범주를 함께 갖는다. 이에 근거하면 코헬렛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3:11)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12:14)’을 찾아가려는 지혜자의 수고를 직접 보여준 지혜자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코헬렛은 하나님 스스로 비밀스럽게 감춰 둔 일에

25 윗글, 56, 58.

26 참조. Michael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Press, 1988). 29. 서기관들의 다양한 활동과 9-12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29-32쪽을 보라. 이 단락이 1장 2절-12장 8절과 연속된 것인지 단절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Mark J. Boda, “Speaking into the Silence: The Epilogue of Ecclesiastes”, 258-259. Mark J. Boda/Longman Tremper/Cristian G. Rada(eds.), *The Words of the Wise Are like Goats: Engaging Qoheleth in the 21st Century* (Winona Lake: Eisenbrauns, 2013).

27 Gerald H. Wilson, “‘The Words of the Wise’: The Intent and Significance of Qohelet 12:9-14”,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3(2) (1984), 175-192.

대한 인간의 인식유한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동시에 코헬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회복시킬 것을 확신하는 태도도 유지한다. 이런 점에서 코헬렛은 전통 지혜를 옹호하는 지혜자이면서 전통 지혜를 비판하는 지혜자라는 중의적 정체성을 보여준다.

둘째, 7장 1-14절과 19-29절이다. 이 단락들에서도 코헬렛은 מְשֻׁלָּם 머살림/잠언들을 재해석한다. 먼저 7장 1-14절에서 코헬렛은 전통 지혜가 유한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그 유한성은 이 세계가 ‘굽어있기’ 때문이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코헬렛은 7장 19-29절에서 지혜의 효용성을 가로막는 ‘인간의 꾀들’을 관찰한다. 이처럼 이 두 단락에서 코헬렛은 ‘(하나님이) 굽게 했다’라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7:13; 참조. 욥 8:3). 하지만 이 상황에서 코헬렛은 전통 지혜 추구 수고를 지속한다. 이런 태도는 12장 9-14절에서 코헬렛이 ‘곧게 폼다’라고 말한 것과 상응한다. 이 ‘곧게 폼다’라는 말은 ‘인간의 꾀들’(7:29)로 어그러진 지혜를 수정하려는 지혜자의 행동을 예시하기 때문이다. 마이클 피쉬베인(M. Fishbane)은 12장 9절의 “많은 잠언을 지었다”(『개역개정』)라는 표현을 집중 분석한다. 그는 지혜자로서 코헬렛이 자신의 글쓰기에 적용된 전형적인 기술을 관찰했다.<sup>28</sup> 그는 본문비평을 수용하긴 하지만, ‘많은 잠언을 지었다’라는 말이 ‘많은 잠언을 곧게 했다(9절)’라는 의미를 포괄한다고 이해한다. 그의 관찰은 כִּנְיָ תִכֵּן/곧게 폼다를 ‘똑바르게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관점에서 ‘주석한다.’ 또는 ‘편집한다.’로 확장해서 풀이한 것이다. 따라서 피쉬베인의 주장에 따르면, 지혜자로서 코헬렛은 전통 지혜와 자신이 경험한 지혜에 대해 설명하고 수정하는 활동까지 시도했다는 것이 설득력있다.

28 윗책.

이런 해석은 12장 9절(“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에서 사용된 부사 **גַּיַב**(오드/지금도 여전히 그렇다)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계속’의 의미를 갖는 이 부사어는 코헬렛이 지속적으로 지혜자의 활동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2장 9절에 따르면, 코헬렛은 ‘지식(אֵלֶּם)을 가르쳤다.’ 또한 ‘깊이 생각하는’ 지혜 추구방법론도 구사했다. 특히 ‘깊이 생각한다.’라는 히브리어 표현 **קָפַחַּ! יִשְׁאַל!** 뷔잇젠 뷔히케르는 ‘세밀하게 듣고’, ‘면밀하게 살핀다’라는 의미를 포괄한다. 안토니오 보노라(Antonio Bonora)에 따르면 9절은 전통적 지혜자로서 코헬렛의 행동을 가장 특징 있게 보여주는 구절이다. 그는 ‘깊이 생각하다’와 ‘연구하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p>29</sup>

첫 번째 동사는 히브리어로 아짤(ʿzn)인데, 오직 이곳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드문 동사로 그 의미가 좀 불분명하다. 논의의 옳고 그름을 저울질하며, 심사숙고하여 귀를 기울이는 자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코헬렛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자신 앞에 나타나는 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연구하고 있다’ 비판적인 성찰의 결과로 그는 많은 ‘격언들’과 지혜적 금언들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므로 수집되거나 전승된 격언이나 금언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코헬렛 자신이 연구하여 그 결실을 응축시킨 ‘잠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30</sup>

즉 코헬렛은 전통 지혜자로서 잠언으로 대표되는 전통 지혜를 현실에서 관찰하고 해석하는 태도를 지속한다. 또한 수정하고 편집한다. 이런 활동으로 전통 지혜를 비판하고 옹호한 것이다.

29 참고. 오민수, 윗글, 135-136.

30 안토니오 보노라, 「코헬렛」(이선영 옮김), (왜관: 성서와 함께, 1992), 43.

넷째, 1장 12-18절과 12장 10절의 비교다. 이 두 구문을 비교하면, 12장 10절에서 코헬렛은 전통 지혜를 옹호, 보수하는 지혜자라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표 1. 지혜자로서 코헬렛 전도서 1장 12-18절과 12장 10절의 비교

	1장 12-18절	12장 10절
대상	עַל כָּל-אֲשֶׁר נַעֲשֶׂה תַחַת הַשָּׁמַיִם	דְּבַר־חַכְמָיִן לְמִצְוָה
	해 아래서 행하게 된 모든 것	아름다운/즐거운 말들(사건들)
행동	לְרֹאשׁ וּלְתוֹרַת בְּחָכְמָה	בְּקֶשׁ קִהְלָת
	지혜로 추론하고 관찰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결과	וְהִנֵּה הַכֹּל הֶבֶל וְרֵעוּת רוּחַ:	וְכָתוּב יֵשֶׁר דְּבַר־אֱמֶת:
	모든 것은 헤벨, 바람을 잡는 것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 표에서 보듯이 12-18절과 12장 10절의 코헬렛은 전통 지혜를 보수하는 지혜자이면서 비판하는 지혜자의 대조적 면모를 ‘여전히(오드)’ 유지했다.<sup>31</sup> 이처럼 12장 9-14절의 ‘네람’은 전도서 전체에서 코헬렛이 이해 불가능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자유로운 통치로 감춰둔 것을 찾으려는 지혜자의 태도를 추동하는 핵심 개념이다. 12장 9-14절은 잠언적 지혜를 반영하는 본문으로서 1장 1절-12장 8절과 긴밀하다. 따라서 전도서 전체에서 그 ‘감춰진 것’에 대한 코헬렛의 태도를 관찰하면 전통 지혜에 대한 옹호와 비판이라는 중의적 수사가 드러난다.

정리하면, 전도서 전체에서 코헬렛은 잠언에 근거하여 지혜 추구를 지속하는 전통적·보수적 지혜자의 면모를 유지한다. 이것은 코헬렛

31 박영식, “코헬렛의 발문(12:8-14)에 대한 재고찰: 지성적 탐구와 신체적 피로(12, 12)”, 『가톨릭신학과 사상』 53호 (2005년), 138-160. 특히 159-160쪽을 참고하라.

이 ‘바호크마’(1:13)와 ‘콜-네람’(12:14)이라는 두 개의 핵심 개념을 토대로 전도서 전체에서 중의적 수사를 전개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코헬렛은 전통 지혜(신명기적 삶의 원리로서 인과응보, 권선징악, 악인 필패 등)를 실제 삶에서 옹호하며 ‘적용’하면서 동시에 전통 지혜의 비판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중의적 수사로 표현한 변증적 태도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한 예를 살펴보려 한다.

### 3. 사회적 상황에서 헤벨 명시 담론에 담긴 전통 지혜 옹호와 비판

앞의 논의에 근거해 이제 코헬렛의 중의적 수사와 그 변증법적 활용을 보여주는 한 예를 살펴보려 한다. 그 예는 헤벨 명시 담론 중 하나인 9장 7-10절이다.

#### 1) 헤벨 명시 담론의 특징

전도서에서 헤벨 명시 담론은 4장 4-16절, 6장 1-12절, 7장 15-18절, 8:14-17절, 9장 7-10절 등이다. 이 단락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형식적인 특징이다. 이 담론들은 주어진 사례마다 단락의 끝 부분에서 빈번하게, 첫 부분이나 중간 단락에서 가끔 ‘헤벨’을 명시한다. 둘째 내용적 특징이다. 이 담론들은 구체적인 사회 상황에서 코헬렛이 실제로 관찰하거나 경험한 사건들을 서술한다. 헤벨을 구체적 사회 현실에 근거해 명시한 것이다. 이런 서술 방식은 로버트 해리슨(C. Robert Harrison)이 한스 슈미트를 인용하여 ‘지혜는 역사적 현상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에 상응한다.<sup>32</sup> 그 역사적 현상이란 경제, 정치, 문

32 C. Robert Harrison, “Qoheleth Among the Sociologists”, *Biblical Interpretation* 5-2 (1997),

화 등과 전방위적으로 직결된다.<sup>33</sup>

한편, 이 명시적 헤벨 담론이 시사하는 역사적 현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전도서는 사회경제적 체계가 활발하게 작동하던 기원전 5세기 말에서 4세기 중엽의 페르시아 시기를 반영한다.<sup>34</sup> 언어,<sup>35</sup> 사회문화적 특정 상황들,<sup>36</sup> 개인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성찰(1:3), 부와 화폐경제를 통해 이익과 돈에 대한 옹호적 사회 분위기<sup>37</sup>, 즉 과도한 투기, 해상 무역 상황(11:1-2),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5:10), 돈의 활용 가치

160.

- 33 윗글, 162-178. 한편 마크 R. 슈니드(Mark R. Sneed)는 전도서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시대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의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도서의 구체적인 사회 배경은 땅에서 일어나는 압제와 억압의 문제였다. 한편 슈니드는 지혜문학에서 역사적 정황을 언급하는 것이 교육적, 윤리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함이라고 파악한다. 지혜문학의 저자들 역시 일반적인 역사서술의 저자들처럼 다양한 자료와 문학 장르를 활용하여 개인과 그들의 관계, 또한 국가의 지배 아래서 사회적 정황들을 다뤘다는 것을 주목한다. Mark R. Sneed, *The Politics of Pessimism in Ecclesiastes: A Social-Science Perspective* (Atlanta: SBL Press, 2012), 111-120.
- 34 전도서 저술 연대추정에 대한 사상적 단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는 다음 글을 참고하라. 권지성, 「특강 전도서: 허무 죽음 기쁨에 대한 모놀로그」(서울: IVP, 2021), 22-24. 한편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전도서는 전쟁이 없었던 전진 4세기 말 페르시아 시대의 예후드 200년 기간에 저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도서 안에는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에 개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험한 투자, 분산투자 등 각종 이익을 얻기 위해 분투하는 정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도서 저자가 보기에 페르시아 시대 예후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극단적인 분투가 활발한 시대였다. 이 시기 전도서의 헤벨과 관련된 배경은 화폐경제가 활발했고 이스라엘의 전통 지혜의 무력감이 팽배했다. 전도서는 이에 대한 대안적이고 대항적인 지혜 운동의 한 축이다. 한편 페르시아 시대의 초기 예후드에 대한 연대와 논의는 Charles E. Carter, *The Emergence of Yehud in the Persian Period*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31-59쪽을 참고하라.
- 35 Choon-L. Seow, "Linguistic Evidence and the Dating of Qohele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5(4) (1996), 643-667.
- 36 Harrison, "Qoheleth Among the Sociologists", 160.
- 37 Seow, *Ecclesiastes*, 21. 시아우는 화폐와 관련된 서술에 주목한다(참고, 「개혁개정」 5:10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금융경제가 상당히 발전된 상황이다. 이것은 이익(1:3, יְתָרוֹן 이트론)이나 몫(5:18, חֵלֶק 헬레크)라는 용어들에 근거한다. 이 용어들은 전도서의 주조음을 형성한다. 즉 투자를 감행하는 시기는 전쟁 없는 시대다. 또한 이 시대는 부를 향한 제한 없는 탐욕을 방출한다. 코헬렛의 헤벨 강조에 담긴 주된 소리는 이 세대에 대한 경고이다.

www.kci.go.kr

(10:19)<sup>38</sup> 등이 그 구체적 상황이다. 즉 헤벨 명시 담론은 화폐경제의 발달과 부에 대한 무모한 욕구가 만연한 시대에 전통 지혜가 무력화된 상황을 반영한다.

둘째, 사회철학-종교 사상적 배경이다. 존 버퀴스트(Jon L. Berquist)<sup>39</sup>는 전도서와 같은 비판적 지혜의 발흥은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적 차원에서 전통적 지혜가 힘을 소실해가는 시대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대에 예언자의 기능이나 서기관들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sup>40</sup>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지혜 유입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41</sup> 또한 그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해온 “궁극적인 가치”(ultimate value)로서의 전통적인 지혜를 거부하는 양상이 강해지면서 그 지혜의 효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났다고 파악한다.<sup>42</sup> 즉 전도서는 “전통적인 지혜의 붕괴에 근거한 지혜와 지식의 상대화(relativization)”의 결과라는 것이다(참고. 10:1).<sup>43</sup> 따라서, 그의 주장은 전도서가 전통적인 지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지혜’를 말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전통적인 지혜를 비판적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지혜 활동이라는 것이다(12:9-14).

정리하면, 전도서의 헤벨 명시 담론에 반영된 사회 상황은 경제, 종교 사상적 배경과 긴밀하다. 특히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예후드 사람들

---

38 권지성, 「특강 전도서: 허무 죽음 기쁨에 대한 모놀로그」, 22-24.

39 Jon L. Berquist, *Judaism in Persia's Shadow: A Social and Historical Approa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177-220.

40 윗책, 177-179.

41 종교 사상적 관점에서 자연 현상에 관한 서술(해가 뜨고 지는 것, 바람이 부는 현상,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상황 등. 참고. 1:5-7)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도서의 이집트 시대 배경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Murphy, *Ecclesiastes*, xx-xxi.

42 윗책, 216.

43 「개역개정」 전 10:1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 보여준 과도한 이익 추구 중심의 화폐경제 활동이 두드러진다. 이 경제적 상황에서 코헬렛은 전통 지혜의 무력감을 인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코헬렛은 중의적 수사에 근거한 변증법적 지혜를 제시하려고 시도했다.

## 2) 전통 지혜의 비판과 옹호를 통한 하나님 경외 9:7-10

### (1) 9장 1-12절의 문학적 구조에서 9장 7-10절의 자리

9장 7-10절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다음 몇몇 학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디슨 G. 라이트(Addison G. Wright)는 9장 1-12절 문맥에서 특히 9장 7-10절을 주목한다.<sup>44</sup> 그 이유는 9장 7-10절이 전통 지혜가 무력해지는 헤벨 상황(9:1-6; 11-12)에서 전도서 전체 주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sup>45</sup> 특히 9장 7-10절은 비관적 사회 상황과 무관하게 긍정적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다른 본문들, 즉 2장 24절, 3장 13절, 5장 18절, 19절로부터 진전된 사고를 보여준다는 것이다.<sup>46</sup> 이처럼 일상적 상황에서 중의적 수사를 반영하는 서술구조에 대해 라이트는 “실제적이고 긍정적인 접근일 뿐만 아니라 경건의 표현이며 종교적인 책임”이라

---

44 에디슨 G. 라이트는 9장 1-12절을 좀 더 세분한다. 즉 9장 1-3절을 1절과 2-3절로, 4-10절을 4-6절과 7-10절로, 11-12절을 11절과 12절로 구분한다. 다른 하나는 9장 1-12절을 1-10절과 11-12절로 양분하는 것이다. Addison G. Wright, “Ecclesiastes 9:1-12: An Emphatic Statement of Themes”,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7(2) (2015), 256. 반면에 리자 M. 볼프(Lisa M. Wolfe)는 9장 7-18절을 한 단락으로 읽는다. 이 단락에서 *carpe diem*과 관련된 명령형들을 고찰한다. Lisa M. Wolfe, *Qobeleth(Ecclesiastes)* (W series; Colledgeville: Liturgical Press, 2020), 141-150.

45 Addison G. Wright, *윳글*, 250-262.

46 이 단락들은 코헬렛이 삶을 향유하는 태도가 주로 나타난다. 9장 7-10절은 이런 인생 향유가 완전히 신학적으로 제시되었다는 특징이 보인다. 이 단락들의 상호 관계는 지면 제약상 여기서 다루지는 않는다.

고 설명한다.<sup>47</sup> 시아우는 이 단락을 길가메쉬 서사시<sup>48</sup>를 인용하여<sup>49</sup> 비교문학적 방법으로 읽는다. 그 결과 헤벨로 규정된 삶의 자리에서 ‘인생 향유’ 관점을 읽어낸다. 그리하여 이 단락(9:7-10)이 헤벨 상황에서 ‘오늘 즐거운 삶을 살자’라는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는 현실 지혜를 제안한다고 파악한다. 닐 사메트(Nill Samet) 역시 이 단락을 인생 향유로 읽는다. 코헬렛이 허무한 날들에도 현재의 소소한 삶에 만족하는 지혜를 권면한다는 것이다.<sup>50</sup> 길가메쉬가 죽음을 통한 인간의 유한성에서도 현재 자기 인생을 향유하는 주제를 드러낸다는 것이다.<sup>51</sup> 이들의 논의는 코헬렛이 전통 지혜의 무력화 속에서도 전통 지혜에 근거한 즐거운 삶을 찾아 누리라는 주제를 강조한다고 이해한 것이다.

하지만, 9장 7-10절은 단순히 헤벨 상황에서 즐거운 삶을 권면하려는 의도를 넘어서는 본문이다. 이 단락에서 코헬렛은 구체적인 사회 상황을 근거로 전통 지혜에 대한 중의적 수사를 명확하게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9장 7-10절의 문맥적 위치와 그 세부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단락은 9장 1-12절을 구성하는 네 개의 소단락(9:1-3; 4-6; 7-10; 11-12) 중 하나다. 첫 번째 단락은 미래 예측의 한계를 갖는 인간의 유한성을 서술한다(1-3절). 두 번째 단락은 이런 유한성에 근거해 의인에게는 삶보다는 죽음이 낫다는 주장을 강화한다(4-6절). 세 번째 단

47 Addison G. Wright, *위글*, 252.

48 길가메쉬 서사시의 형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글들을 참고하라. 배철현, “신-레케-우닌니의 『길가메쉬 서사시』 편집 의도”, 『인문언어』 7호 (2005년), 157-203. 또한 김산해, 『최초의 길가메쉬 서사시』 (서울: 휴머니스트, 2020), 12-15.

49 Seow, *Ecclesiastes*, 305.

50 Nill Samet, “Gilgamesh Epic and the Book of Qohelet: A New Look”, *Biblica* 96(3) (2015), 375-390, 특히 377-379.

51 *위글*, 375.

락은 하나님의 선물 같은 현재를 즐겁게 향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권면한다(7-10절). 마지막 단락은 스올을 통해 인간의 미래 인식의 유한성을 예시한다(11-12절). 따라서 전체적으로 9장 1-12절은 헤벨로 규정되어버린 사회적 한계 상황에서 오히려 삶의 즐거움을 찾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권면하는 긍정적 지혜를 제시한다. 이런 흐름은 9장 1-12절이 대체로 A-B//B'-A'의 교차병렬(chiasm)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 미래 예측불가의 인간 9:1-3
- B. 죽음보다 삶이 낫다 9:4-6
- B'. 제한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9:7-10
- A'. 미래 예측불가의 인간 9:11-12

이 구조에서 9장 7-10절은 9장 4-6절의 죽음보다 삶이 낫다는 단락과 대응함으로써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삶이 낫다는 주장을 실증한다. 이 점은 다음 세부구성에서 잘 드러난다.

#### A. 7-8절 현재 삶을 긍정하는 종교적 행위 유지

<sup>7</sup>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 이니라. <sup>8</sup>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 하도록 할지니라.

#### B. 9절 헤벨 상황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삶

<sup>9</sup>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www.kci.go.kr

### A'. 10절 현재 삶을 역설적으로 긍정하는 스올의 의미

<sup>10</sup>네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즉 9장 7-10절은 9절(B)을 기준으로 7-8절(A)과 10절(A')에서 종교적 태도를 통해 전통 지혜를 옹호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따라서 9장 7-10절에서 코헬렛은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9절)이라는 헤벨 상황을 상징함으로써 전통 지혜의 효력이 와해되었음을 판단한다. 그러나 7-8절과 10절에서 코헬렛은 태도를 전환한다. 헤벨 상황을 극복하는 긍정적 지혜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종교적 의식을 유지하며, 종말론적 삶의 끝(스올)을 기억하자는 전통 지혜로 회귀한 것이기도 하다. 폭스는 9장 10절에 대해 이븐 에즈라의 말을 인용하여 10a절에서 10b절로 내용이 확장된 것으로 이해했다. 즉 즐거운 삶(10a)으로부터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고 본 것이다(10b).<sup>52</sup> 이런 관찰은 코헬렛이 전통 지혜를 옹호하려는 의도를 유지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 단락의 구성에 근거할 때, 코헬렛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 삶을 수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현재 자기 삶에서 누려야 할 소소한 자기만족을 적극 권면한다는 것도 드러난다. 그리고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하여 찾아내야 하는 지혜 활동을 권장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헬렛의 관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옹호하고 보수하는 전통 지혜자이며 비판적 지혜자라는 중의적 태도를 견지한다고 할 수 있다.<sup>53</sup>

이처럼 9장 7-10절은 코헬렛이 전통 지혜의 비판과 옹호라는 중의

52 Michael V. Fox, *Qoheleth and His Contradictions* (Sheffield: Almond Press, 1989), 259-260.

53 인생 향유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연관 짓는 견해는 Eunny P. Lee, *The Vitality of Enjoyment in Qoheleth's Theological Rhetoric*를 참고하라.

적 태도를 변증법적으로 견지했음을 잘 보여준다. 그 중의적 수사는 다 음 두 용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9장 7-10절에서 중의적 수사(double entendre)의 근거들

① 9절 ‘뭉’(מִּלְקָה 헬커카/너의 뭉)

코헬렛의 중의적 수사의 한 근거는 9절에서 헤벨을 ‘뭉’(מִּלְקָה 헬커 카/너의 뭉)과 관련지어 서술한 것이다. 먼저 ‘뭉’을 긍정의미로 제시한다. ‘뭉’은 헤벨 상황에서도 인간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전통 지혜의 기본태도를 적극 옹호하는 용어다. 실제로 코헬렛은 헤벨 을 자주 ‘헬레크’(뭉)와 짝을 이뤄 언급한다. 7장 15-18절은 그 예이다. 이 단락에서 ‘뭉’은 인간의 수고이면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초래된 긍정 적 결실이다. 이런 의미를 9장 7절에서도 읽을 수 있다. 볼프는 9장 9절 을 7절(“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과 이 어서 이해한다.<sup>54</sup> 이로써 코헬렛이 이 ‘뭉’을 전통 지혜 옹호 개념으로 이 해했다는 것에 동의한다. 땀을 흘려야만 하는 헤벨 상황 속에 이미 하나 님의 선물이 들어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한편, 이 단락에서 ‘뭉’은 사 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가는 소소한 자기만족이기도 하다. 이 ‘사랑 하는 아내와 함께 사는 날이 너의 헤벨의 모든 인생 כָּל־יְמֵי חַיֵּי הַבְּלָה קוֹל-여메 하예 헵레카에 상응한다. 이 서술은 잠언 17장 1절의 권면과 연동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 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지만 ‘뭉’은 비판적 의미를 담기도 한다. 창세기 3장에서 해 아래 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습, 즉 אֲשֶׁר-אָתָּה עֹמֵל תַּחַת הַשָּׁמַשׁ 아셀-앗

54 Wolfe, 윗책, 141.

타 아멜 타하트 핫세메쉬와 연관되었다(참조. 창 3:17-19). 코헬렛은 이 단락에서 창세기의 기록처럼 땀 흘리며 경작의 책임을 짊어진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반영한다. 코헬렛이 9절 첫 부분에서 '너의 헤벨의 모든 인생'이라고 규정한 것이 그 근거다. 이는 코헬렛이 사람에게 주어질 모든 시간이 창조 때부터 땀 흘리는 수고를 감당해야 할 헤벨 상황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임의성 아래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채 수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 지혜에 대한 비판적 어조다.

정리하면, 9장 7-10절에서 헤벨과 관련된 '뭇'은 중의적 수사를 보여준다. 특히 9절을 축으로 비판적 헤벨 상황(7-8절)과 낙관적 헤벨 상황(10절)이 전환적으로 대응한다. 이처럼 코헬렛이 사용한 '뭇'은 창조 신학적 관점에서 전통 지혜를 비판하면서도 옹호하는 의미로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코헬렛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헤벨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응하기를 촉구한 것이다.

## ② 10절 스올 <sup>לַשְׁאוֹל</sup>

전통 지혜의 옹호와 비판이라는 코헬렛의 중의적 수사에 대한 두 번째 근거는 '스올'이다. 먼저 스올은 비판적 의미를 반영한다. 이곳은 절대 허무의 공간이다.<sup>55</sup> 죽은 자들이 머무는 어두움의 장소다(욥 10:21-22; 시 143:3). 또한 침묵의 지역이다(시 94:17; 115:17). 이곳에는 '일이나, 계획, 지식, 지혜도 없다.' 물론 스올도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곳이다(시 139:8).

55 폭스에 따르면, 고대 전통에서 '스올'은 헬레 문명의 '하데스(Hades)'와 같은 지하 세계다. 어둠과 불활성(不活性, inertia), 영면 같은 공포스러운 영역이다. 하지만 이런 묘사가 오히려 코헬렛이 현재의 즐거움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icheal V. Fox, *Ecclesiastes* (The JPS Bible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4), 64.

그곳은 생명의 영역이 아니다. 죽음의 지역이다. 하나님을 만나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이다.

그러나 스올은 낙관적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이제 스올은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의미를 갖는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시간이다(참고, 시 6:6). 이런 점에서 스올은 죽음에 대한 역설적 공간으로서 시간을 함의한다. 볼프는 이 스올이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의미 있는 인간의 삶”<sup>56</sup>을 상기시킨다고 보았다. 즉 스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근거하여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인생 향유를 강조하는 선택적 용어라는 것이다. 맞소라 텍스트 역시 이 시간의 의미를 반영한다. 10절은 관계사와 2인칭 대명사와 함께 사용되었다. הַלֵּלְךָ(홀레크)(הָלַלְתָּ 할라크의 능동 분사형)를 사용하여 이 스올을 수식한다. אֲתָה הָלַלְתָּ שָׁמָּה אֶת־בִּישׁוּל אֲשֶׁר בְּשָׂאוֹל אֲשֶׁר בִּישׁוּל אֲשֶׁר בִּישׁוּל אֲשֶׁר בִּישׁוּל 비스올 아세르 앓타 호레크 샴마/그곳이 네가 들어가고 있는 곳이다(사역 私譯). 이러한 시간 흐름에 따를 때, 스올은 미래에 가야만 도달하는 고정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도 독자가 겪는 현재 경험 영역이다. 『개역개정』이 이 단락에서 스올을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로 번역한 것도 시간 의미를 반영한 근거가 된다.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올은 단순히 죽음이라는 비극적 공간이 아니다. 미래의 미지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죽음에 기반하여 ‘현재’ 긍정적 삶을 추동하는 긍정적, 역설적 시공간이다. 따라서 스올은 전통 지혜의 유한성을 반영한 죽음이라는 공간으로서 비판적이지만, 죽음을 인식하여 전통 지혜에 근거한 현실의 긍정적 삶을 옹호하는 시간적 의미에서는 오히려 낙관적인 의미를 반영한다. 이 스올을 통해 코헬렛은 전통 지혜의 옹호자이면서 비판자인 것이다.

정리하면, 헤벨 명시 담론의 한 예인 9장 7-10절에서 코헬렛은 선

---

56 윗책, 147.

과 악에 대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원리가 오작동하는 이해 불가능한 현실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주도적인 임의성을 신뢰하도록 추동한 지혜자로 나타난다. 특히 ‘뭉’과 ‘스올’이라는 개념을 통해 코헬렛은 헤벨 상황에서 하나님 경외의 삶을 강조하며 전통 지혜를 옹호하는 중의적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다시 말해 코헬렛은 현실의 헤벨 상황에서 전통 지혜가 촉발한 과도한 욕망을 비판하면서 ‘그 지혜로’ 하나님의 감춰진 세계(은밀한 일)를 탐구하여 하나님 경외라는 새로운 전통 지혜를 옹호하는 지혜 신학 주제를 천착한 것이다.

#### 4. 결론

본 연구는 헤벨 담론에서 코헬렛이 중의적 수사(double entendre)를 위해 두 개의 열쇠어를 효과적으로 구사했다는 것을 논증했다. 그 열쇠어는 ‘바호크마(그 지혜로, 1:13)’와 ‘콜-네람(모든 감춰진 것, 12:14)’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이러한 중의적 수사가 활용된 예로 9장 7-10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코헬렛이 전통 지혜에 대한 비판과 옹호라는 변증적 태도를 유지했음을 확인했다. 즉 코헬렛은 중의적 수사를 통해 신명기나 잠언에서 강조된 전통 지혜를 당대 사회 상황에서 비판하고 옹호한 것이다. 코헬렛은 무력해진 사회현상에 대해 ‘그 지혜(1:12-18; 12:9-14)가 추구하는 신적 원리(선과 악에 대한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오작동한다는 것을 자기 경험으로 비판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임의성과 비의성<sup>57</sup>을 인정하며 옹호하는 전통 지혜자의 태도를 견지한 것이다.

57 참고. Brittany Melton, *Where Is God in the Megilloth?: A Dialogue on the Ambiguity of Divine Presence and Absence* (Reidn: Brill, 2018).

따라서 중의적 수사를 적용한 본연구는 이후 전도서 연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바지할 것이다. 첫째, 전도서는 헤벨보다 헤벨 담론으로 일관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전도서는 중의적 수사를 토대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옹호라는 관점으로 전통 지혜와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 셋째, 전도서는 현실에서 전통 지혜에 대한 비판과 옹호를 토대로 선과 악에 대한 미래 하나님의 심판을 견고하게 신뢰한다는 점 등이다. 이로써 현재 자기 삶에서 전통 지혜의 알짜인 하나님 경외신학을 변증하는 지혜서로 이해할 신학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승일, “아가서에 등장하는 중의적 표현들(double entendres)에 대한 연구”, 『신학사상』 151호 (2010년), 11.
- 권지성, 『특강 전도서: 허무 죽음 기쁨에 대한 모놀로그』 (서울: IVP, 2021).
- 김진규, “구약 수사비평의 새로운 연구 방향 모색”, 『구약논단』 21권 4호 (2015년), 167-208.
- 김회권, 『인문 고전으로서의 구약성서 읽기』 (서울: 박영사, 2021).
- 바솔로뮤, C., 『전도서 주석』 (김정훈 옮김), (베이커 지혜 문헌, 시편 주석 시리즈 6; 서울: CLC, 2020).
- 박영식, “코헬렛의 발문(12:8-14)에 대한 재고찰: 지성적 탐구와 신체적 피로(12, 12ㄴ)”, 『가톨릭신학과 사상』 53호 (2005년), 138-160.
- 배정훈, “전도서에 나타난 잠정적인 지혜”, 『구약논단』 17권 4호 (2011년), 10-32.
- 보노라, 안토니오, 『코헬렛』 (이선영 옮김), (왜관: 성서와함께, 1992).
- 브라운, W. P., 『전도서』 (채은하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송화숙, “전도서에 나타난 변증법적 신정론 연구”, 『평택대학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2015.
- 오민수, “지혜 전통의 계승과 혁신: 전도서에 사용된 이른바 ‘서술형 사고패턴’의 유래에 대한 소고”, 『구약논단』 20권 4호 (2018년), 281-304.
- \_\_\_\_\_, “잠언과 전도서의 지혜프레임 스케치: 잠언 24:10-12과 전도서 4:7-9을 중심으로”, 『구약논집』 11집 (2016년), 120-143.

- 차준희, “전도서 1장의 신학적 읽기”, 『성령과 신학』 25호 (2009년), 22.
- 최창모, “전도서의 수사적 질문과 ‘헤벨 חֶבֶל’의 상징적 기능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 104집 (1999년), 112-145.
- 한성일, “언어 전략으로서 중의성 연구”, 『한국어 의미학』 27호 (2008년), 341-364.
- Abrams, M. H./Harpham, Geoffrey,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Boston: Wassworth, 2009).
- Ackerman, H. C., “The Problem of Ecclesiastes”, *Biblical World* 48(2) (1916), 82-88.
- Berquist, Jon L., *Judaism in Persia’s Shadow: A Social and Historical Approa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Boda, Mark J., “Speaking into the Silence: The Epilogue of Ecclesiastes”, 258-259  
Boda, Mark J./Tremper Longman/Cristian G. Rada(eds.), *The Words of the Wise Are like Goats: Engaging Qoheleth in the 21st Century* (Winona Lake: Eisenbrauns, 2013).
- Bolin, Thomas, “Rivalry and Resignation: Girard and Qoheleth on the Divine-Human Relationship”, *Biblica* 86(2) (2005), 245-259.
- Burkes, Shannon, *Death in Qoheleth and Egyptian Biographies of the Late Period* (SBLDS 170; Atlanta: Scholars Press, 1999).
- Carter, Charles E., *The Emergence of Yehud in the Persian Period*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Dell, Katharine J., “Ecclesiastes as Wisdom: Consulting Early Interpreters”, *Vetus Testamentum* 44(3) (1994), 301-329.
- Farmer, Kathleen, *Proverbs and Ecclesiastes: Who Knows What Is Good?* (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1).
- Fishbane, Michael,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Press, 1988).
- Fox, Michael V.,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Build up: A Reading of Ecclesiastes* (Grand Rapids: Eerdmans, 1999).
- \_\_\_\_\_, *Ecclesiastes* (The JPS Bible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4).
- \_\_\_\_\_, *Qoheleth and His Contradictions* (Sheffield: Almond Press, 1989).
- Gitay, Yehosuah, “Jonah: The Prophecy of Antirhetoric”, Astrid B. Beck/Andrew H. Bartelt/Paul R. Raabe/Chris A. Franke(eds.), *Fortunate the Eyes That See: Essays in Honor of David Noel Freedman in Celebration of His Seventieth Birthday*

- (Grand Rapids: Eerdmans Pub Co, 1995), 197-206.
- Goh, Samuel, T. S., "The Hebel World, Its Ambiguities and Contradiction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5(2) (2020), 198-216.
- Harrison, C. Robert, "Qoheleth Among the Sociologists", *Biblical Interpretation* 5(2) (1997), 160.
- Lee E. P., *The Vitality of Enjoyment in Qoheleth's Theological Rhetoric* (Berlin: De Gruyter, 2005).
- Keefer, Arthur, *Ecclesiastes and the Meaning of Life in the Ancient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 Kim, Jimyung, *Reanimating Qoheleth's Contradictory Voices: Studies of Open-Ended Discourse on Wisdom in Ecclesiastes* (Leiden: Brill, 2018).
- Melton, Brittany, *Where Is God in the Megilloth?: A Dialogue on the Ambiguity of Divine Presence and Absence* (Reidn: Brill, 2018).
- Miller, B. Douglas, *Symbol and Rhetoric in Ecclesiastes: The Place of Hebel in Qoheleth's Work* (Atlanta: Academia Biblica, 2002).
- Murphy, Ronald, E., *Ecclesiastes* (Word Biblical Commentary 23A; Waco Texas: Word Books, 1992).
- \_\_\_\_\_, "Qoheleth Interpreted: the Bearing of the Past On the Present", *Vetus Testamentum* 32 (1982), 331-337.
- Peterson, Brian N., *Qoheleth's Hope: The Message of Ecclesiastes in a Broken World* (London: Lexington Books, 2020).
- Roberts, Jimmy. J. M., "Double Entendre in First Isaiah",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4 (1992), 39-48.
- Seow, C. L., *Ecclesiast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97).
- \_\_\_\_\_, "Linguistic Evidence and the Dating of Qohelet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5-4 (1996), 643-667.
- Sneed, Mark R., *The Politics of Pessimism in Ecclesiastes: A Social-Science Perspective* (Atlanta: SBL Press, 2012).
- Sun Chloe, "Ecclesiastes among the Megilloth: Death as the Interthematic Link",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7(2) (2017), 185-206.
- Watson, Wilfred G. E., *Classical Hebrew Poetry: A Guide to its Techniqu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Weeks, Stuart, *Ecclesiastes and Scepticism* (London: T&T Clark, 2011).

Wolfe, Lisa M., *Qoheleth(Ecclesiastes)* (W series; Collgeville: Liturgical Press, 2020).

Wright, Addison G., "Ecclesiastes 9: 1-12: An Emphatic Statement of Themes",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7(2) (2015), 250-262.

검색어

헤벨담론, 중의적 지혜 자세히 읽기, 올람

[ ABSTRACT ]

## Criticism and Conservation of Traditional Wisdom in Ecclesiastes: Focusing on Two Key Words and Eccl. 9:7-10

Heung-Hyun Kim  
Soongsi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examine traditional interpretations of *hebel* discourses in the book of Ecclesiaste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negative meaning of the term *hebel*. But this study argues that Qoheleth employed double *entendre* to carry ambivalent meanings in his/her discourses that deal with *hebel*. To this end, this study applies a theological theme interpretation method through close reading based on the current canonical form.

The central thesis of this study is that ‘the various *hebel* discourses in Ecclesiastes carry out the double *entendre* dialectically through two key words.’

The core arguments that support this central thesis are two. First, Qoheleth in Ecclesiastes shows double *entendre* that both criticizes and defends the traditional wisdom. The key texts that support this are 1:12-18 and 12:9-14. The key concepts of these paragraphs located at the beginning and end of Ecclesiastes are ‘בְּחָכְמָה’(1:13, “with the Wisdom”) and ‘כֹּל־נִתְּלָם’(12:14 “everything hidden”). Second, the *hebel* discourses in Eccl 9:7-10, one of the *hebel* explicit discourses, well prove Qoheleth’s criticism and conservation of traditional wisdom under the

www.kci.go.kr

incomprehensible social circumstances of *hebel*.

The study concludes that Ecclesiastes concretely revealed the significance of the wisdom literature of Ecclesiastes to guide the people of Yehud who wanted to realize excessive self-desire into the fear of God based on double *entendre* that criticized and conserved traditional wisdom. The significance of this thesis is to prove that Ecclesiastes is neither a book of futility nor a book of enjoyment of life, but rather that of conflicting understanding schemes, trusting eschatological judgment and consistently describing the critique of the traditional wisdom that drives a God-fearing life in reality.

key words

*hebel*-discourse, Entendre wisdom close-reading, Ôlām

투고일 : 2023년 8월 19일

심사일 : 2023년 10월 26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11월 02일

www.kci.go.kr